

##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김 용 석\*

이 논문은 청소년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통제 간의 관계와 학년에 따른 두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음주수준은 음주빈도에 따라 금주, 호기심 수준, 실험적 수준, 습관적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의 통제에는 부모의 감독,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 유무,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학년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고등학생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통제와의 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금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년 변수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고등학생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감독수준 간의 관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약화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과 음주수준 간의 관계는 2학년에서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허용여부와 음주수준 간의 관계는 2학년과 3학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부모의 감독수준은 낮아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음주를 허용하거

\*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나 부모의 태도가 불분명한 정도가 높아진다고 응답하였다. 이 논문의 장점 중의 하나는 예방프로그램의 핵심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예방프로그램은 수정이 가능한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요인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개입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규칙을 세우며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양육방식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할 것이다.

## 1. 연구의 필요성

기존의 연구(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문화체육부, 1996)를 통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고 알코올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임이 밝혀진 이상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는 청소년 음주의 원인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되는 요인 중 부모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자녀가 사회화를 배우는 최초의 장소가 가족이고, 성인기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며, 이는 자녀의 가치관, 태도, 행동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청소년 음주와 관계가 있는 부모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외국의 선행연구들이 있어 왔다. 음주와 관련된 가족력, 편부, 편모 가족과 같은 가족 구조적 문제,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청소년 음주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연결시켜 보면 그 활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 왜냐하면 가족력, 가족 구조상의 문제, 사회·경제적 요인 등은 특정 예방프로그램에 의해 변화 또는 수정이 용이한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Life Skills Training, 생활기술훈련) 개발자로 널리

알려진 Botvin(1996)도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론은 사실 매우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와 관련이 있으면서 변화 또는 수정이 가능한 요인들을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통제

Reifman 등(1998)은 청소년의 알코올 및 약물사용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s*)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이란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포함된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DHHS, 1993).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영향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모의 영향을 들 수 있으며(Reifman et al., 1998; USDHHS, 1993), 음주와 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모관련 요인이 양육이다(Hawkins et al., 1997; Reifman et al., 1998).

양육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사회학습이론인데(Jang et al., 1997) 사회학습이론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보상과 긍정적 강화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Fisher et al., 1998). 예를 들면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선행을 했다고 인식할 경우 부모는 칭찬과 같은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강화물을 자녀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강화하고 자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선행 또는 친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도 학습되는 것으로 사회학습이론은 주장하고 있는데(Hansen et al., 1981), Patterson 등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상의 혼란이 자녀의 문제 행동의 형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992, 재인용; Jacob et al., 1997).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규칙에 순응하는지를 감독하며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해 일관성 있는 훈육(*discipline*)을 적용하는

등의 가족관리/통제기술(*family management/control strategies*)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되는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Bahr et al., 1998).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통제가 중요한 양육의 차원으로 부각되는데(Stern et al., 1999),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노출되며 사회적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주를 하거나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또래집단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음주와 관련된 또래의 압력을 받게 되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또래집단의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위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음주행위를 포함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기대를 세우고 이를 자녀에게 전달하며 부모가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 밖에서의 자녀의 행동을 감독함으로써 또래집단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그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또래집단의 압력, 술 구입의 용이성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방관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규칙을 세워 이에 순응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감독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양육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육방식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부모를 산만한 부모(*diffusion parent*)라 부르는데, 산만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상실하게 되고(Patterson, 재인용; Hansen et al., 1981) 자녀는 가족과 사회의 규범을 내재화하기 어렵게 되며(Jang et al., 1997; Stice et al., 1993) 그 결과 자녀의 문제 행동은 강화되고(Jang et al., 1997; Smith et al., 1997; Stice et al., 1993) 이는 청소년의 음주나 약물사용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Jacob 등, 1997).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방과 수정에 수많은 연구를 한 Patterson 등도 자녀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984, 재인용; Herman et al., 1997).

## 2)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사용 간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는 부적 선형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 Peterson 등(1995)은 12~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 3년간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며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강화해주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음주를 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양육방식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음주와 자녀의 음주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hilcoat 등(1996)의 연구도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이 약물사용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 가족 구조(편부, 편모 가족) 등의 요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fman 등(1998)이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는 자녀가 정기적 음주자(*regular drinker*, 1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음)가 되는 것과 폭음하는 것(한 번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을 연기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청소년 폭음의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낮은 수준의 감독이라고 제시하였다. Stice 등(1993)의 패널연구는 부모의 통제(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통제를 측정하였음)와 청소년 음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단계를 넘어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각기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음주와 약물사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는 자녀의 알코올 이외의 약물사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Stice 등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부모의 통제가 심할 경우 청소년은 부모에게 저항을 하게 되고 저항의 표현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수준과 자녀의 음주와는 부적 선형관계를 나타내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통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음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 중의 하나가 청소년의 연령이다.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로 이동하면서 가족관계보다는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사회관계의 핵심이 된다.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통제에 순응하는 경향이 높으나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심이 강해지고 사회생활이 다양해져 부모의 영향이 점차 약화된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

진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음주수준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음주수준간의 관계가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고학년 청소년층에서보다 부모의 통제에 순응하는 경향이 높은 저학년 청소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3. 연구 문제

청소년 음주만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으며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 음주를 청소년 약물남용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주가 흡입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음주의 예방을 위한 연구는 그들의 음주뿐만 아니라 기타 약물사용의 예방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연구분야이다.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이 잘 발달된 외국의 경우 청소년 음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은 물론 최근에 이르러 프로그램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움직임이 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 개입방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음주와 관련있는 수정 가능한 부모관련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조사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① 청소년 음주수준과 부모의 통제와의 관계, ②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수준 간의 관계.

### 4. 연구 방법

#### 1) 표본 및 표본추출 방법

이 연구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 편중을 없애기 위하여 우선 지역을 교육구청별로 구분하여 총 9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각 구역마다 1개교 2학급을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당 약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방

법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설문지를 전달한 후 교사가 각 학급에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조사는 1998년 11월 중순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 2) 조사도구

### (1)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을 음주빈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청소년의 음주수준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마다 다양한데 Scheier 등(1997)의 음주수준 분류방법을 보면 음주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을 했어도 현재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 한 달에 3회 이하로 음주하는 청소년, 한 달에 4회 이상 음주하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Scheier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자를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조사시점까지 한 번도 음주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경험은 하였으나 지난 한 달 동안 음주를 하지 않은 청소년, 한 달에 3회 이하로 음주하는 청소년, 한 달에 4회 이상 음주하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 (2) 부모의 통제

부모의 통제는 Reifman 등(1998)의 연구처럼 부모의 감독,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허용정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감독은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과후나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 외출할 때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알리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감독수준을 이와 같이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Barnes 등, 1995; Peterson 등, 1995; Reifman 등, 1998). 번역본의 신뢰도는 .81로 원본의 신뢰도(.64)보다 높게 나와 상당히 양호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규칙유무는 조사대상자의 행동(이성교제, TV 시청 등)에 대해 부모가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리고 음주에 대한 부모의 허용은 조사대상자의 음주에 대해 부모 허용 정도를 6개의 응답범주(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허락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허락하는 편이다, 허락한다, 모르겠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도구는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음주수준을 측정하는 문항 이외에 술 구입의

용이성, 술 구입경로, 술을 마시는 상대, 알코올 이외의 다른 약물의 사용 경험 등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 3) 자료분석

연구문제 1은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통제수준(부모의 감독, 규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화 모형 (*elaboration model*) 과 관련성 측정치 (Cramer's V)<sup>1)</sup>를 사용하였다. 구체화 모형은 횡단연구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제3의 변인을 고려함으로써 처음 두 변인간의 관계의 유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ubin et al., 1993). 관련성 측정치는 변수간의 관계의 존재 여부만을 나타내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두 변인간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Rubin et al., 1993) 학년에 따른 부모의 통제와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의 관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5.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총 882명의 조사대상자가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성별분포는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남학생이 50.9%, 여학생이 49.1%였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가장 많아 64.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1학년으로 22.9%, 2학년이 13.7%였다. 3학년 학생이 많은 이유는 수능시험 직후에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측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3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표 1〉은 음주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으로서 술 구입이 얼마나

1) Cramer's V는 분석대상인 두 변수가 명목변수이고, 두 변수 중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가질 때 사용된다.



〈표 1〉 술 구입의 용이성

술 구입의 용이성	N (%)
매우 어렵다	20 (2.8)
약간 어렵다	234 (32.2)
약간 쉽다	190 (26.2)
매우 쉽다	282 (38.8)

〈표 2〉 술 구입 장소

술 구입 장소	N (%)
집	65 (9.9)
친구	23 (3.5)
가게	419 (64.0)
카페	72 (11.0)
기타	76 (11.6)

용이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매우 쉽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고 ‘약간 쉽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6.2%로 60% 이상이 술 구입이 용이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주로 술을 구입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표 2〉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75.0%) 술을 구입한 곳으로 가게나 카페라고 응답하였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어 청소년에게 술과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고 또 청소년이 별 어려움 없이 술을 구입하고 음주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9.9%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부모나 가족의 통제가 있는 장소를 피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술을 마시는 대상으로는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족 또는 친척이라고 지정한 경우가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제사나 명절과 같은 집안 행사시에 부모나 친척이 청소년의 음주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주 술 마신 시기로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생일이나 시험 후 그리고 수능시험 전에 백일주를 마시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3〉 술을 마시는 대상 (복수응답)

대 상	N (%)
친 구	547 (75.0)
선배 혹은 후배	53 (7.3)
이성친구	38 (5.2)
혼 자	19 (2.6)
가족 또는 친척	167 (22.9)
기 타	18 (2.5)

〈표 4〉 자주 술 마신 시기 (복수응답)

시 기	N (%)
수학여행	84 (13.6)
소풍, 견학, 수련회	45 (7.3)
생 일	219 (35.6)
시험 후	175 (28.4)
축제, 체육대회 후 뒷풀이	91 (14.8)
백일주	165 (26.8)
개인적 이유	302 (49.0)

## 2)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

〈표 5〉는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에 관한 결과이다. 음주수준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음주빈도에 따라 음주경험이 전혀 없는 금주, 지난 한 달 동안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호기심으로 음주를 경험한 경우를 호기심 수준, 한 달에 3회 이하로 음주한 경우를 실험적 수준, 그리고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를 습관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조사당시까지 한 번도 음주를 경험하지 않았던 금주 학생은 전체의 15.1%로 매우 낮아 대부분의 청소년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한 달에 1번 이상 음주하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52.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습관적 또는 정기적으로 음주하는 비율도 17.5%나 차지하였다. 학년별 음주수준의 분포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음주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1, 2학년에서는 호기심 수준의 비율이

〈표 5〉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

음주 수준	N(%)
금 주	126(14.3)
호기심 수준	271(30.7)
실험적 수준	293(33.2)
습관적 수준	146(17.5)

〈표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

구 분	응답범주	금 주(%)	호기심 수준(%)	실험적 수준(%)	습관적 수준(%)
학 년	1학년	24.3	41.6	27.6	6.5
	2학년	22.3	33.9	30.4	13.4
	3학년	10.4	28.9	38.6	22.1
	Chi Square	55.16***			
성	남	9.7	22.7	38.9	28.7
	여	20.8	42.9	30.8	5.5
	Chi Square	111.78***			

주: \*\*\* p<.000

가장 높았고, 3학년에서는 한 달에 1회 내지 3회 이하로 음주하는 실험적 수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3학년 학생의 비율이 1학년 학생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의 경우 실험적으로 음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서는 호기심 수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은 음주수준에 따른 약물사용유무에 관한 결과이다. 담배, 흡입제, 수면제 사용은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담배의 경우 금주 청소년의 2.5%만이 흡연을 경험하였으나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청소년의 77.5%가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드, 가스 등과 같은 흡입제와 수면제의 사용도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청소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진해제와 대마초를 제외한 모든 약물의 사용경험이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다른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음주수준에 따른 약물사용 경험

약 물	사용유무	금 주 (%)	호기심 수준 (%)	실험적 수준 (%)	습관적 수준 (%)	Chi Square
담 배	예	2.5	21.8	30.1	77.5	195.32***
	아니오	97.5	78.2	69.9	22.5	
흡입제	예	1.7	1.3	0.7	6.8	17.55**
	아니오	98.3	98.8	99.3	93.2	
각성제	예	3.3	6.2	4.5	8.3	3.90
	아니오	96.7	93.8	95.5	91.7	
수면제	예	2.5	5.0	6.3	14.4	16.97**
	아니오	97.5	95.0	93.7	85.6	
진해제	예	5.0	5.0	5.2	3.1	1.04
	아니오	95.0	95.0	94.8	96.9	
진통제	예	33.3	33.9	33.8	33.1	0.03
	아니오	66.7	66.1	66.2	66.9	
신경안정제	예	3.3	4.6	5.3	8.5	3.79
	아니오	96.7	95.4	94.7	91.5	
대마초	예	1.7	2.5	1.1	3.1	2.20
	아니오	98.3	97.5	98.9	96.9	
기타 마약류	예	1.7	2.1	1.1	2.3	1.02
	아니오	98.3	97.9	98.9	97.7	

주 : \*\* p < .01, \*\*\* p < .000

### 3) 부모의 통제

〈표 8〉은 부모의 통제의 세 가지 차원인 부모의 감독, 규칙유무, 조사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관한 결과이다. 거의 41.4%와 58.7%가 부모에게 방과후와 외출 시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는지를 보고하는 편이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23.4%, 14.4%로 나타나 거의 과반수 정도가 자신의 소재(행방)에 대해 부모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성교제나 TV 시청과 같은 조사대상자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런 규칙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56.9%나 차지하였고 40.8%만이 조사대상자와 같은 청소년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가정

〈표 8〉 부모의 통제

부모의 통제	응답 범주	%
방과후에 어디에 있는지 부모에게 보고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2
	보통이다	35.2
	그런 편이다	28.3
	항상 그렇다	13.1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외출시 어디에 가는지 부모에게 보고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0
	보통이다	26.8
	그런 편이다	39.3
	항상 그렇다	19.4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유무	있 다	43.1
	없 다	56.9
자신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12.8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28.0
	허락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6.6
	허락하는 편이다	25.7
	허락한다	4.1
	모르겠다	12.7

에서 음주를 포함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이 없거나 부모의 태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부모의 통제와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과의 관계

##### (1)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

〈표 9〉는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감독수준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감독수준은 언급한 것처럼 두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하여 척도상의 점수 범위는 0점부터 8점까지이며 평균(4.83)과 표준편차(1.97)을 이용하여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이하(평균-1 표준편차)를 낮은 수준으로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이상(평균+1 표준편차)을 높은 수준으로

〈표 9〉 부모의 감독수준과 음주수준과의 관계

음주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금 주	27.8	72.2
호기심 수준	54.0	46.0
실험적 수준	57.5	42.5
습관적 수준	83.6	16.4
전 체	55.9	44.1
Chi Square	34.76***	

주 : \*\*\*  $p < .000$

〈표 10〉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유무와 음주수준과의 관계

음주 수준	있 다(%)	없 다(%)
금 주	43.5	56.5
호기심 수준	42.8	57.2
실험적 수준	42.3	57.7
습관적 수준	43.8	56.2
전 체	42.9	57.1
Chi Square	0.12	

로 분류하였다. 결과를 보면 음주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은 방과후나 외출시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알리는 비율이 72.2%로 매우 높았으나 음주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알리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비율(83.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

TV 시청이나 이성교제와 같은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 유무와 청소년의 음주수준과는 〈표 10〉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음주수준이 금주로 분류된 학생과 습관적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의 56.5%와 56.2%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50% 이상의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1〉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음주수준과의 관계

음주수준	허용하지 않음(%)	허용 또는 불분명함(%)
금 주	73.9	26.1
호기심 수준	67.2	32.8
실험적 수준	52.2	47.8
습관적 수준	39.5	60.5
전 체	57.6	42.4
Chi Square	34.06***	

주 : \*\*\*  $p < .000$

(3)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청소년의 음주수준 간의 관계를 〈표 11〉이 보여주고 있다. 분석을 위해 부모의 태도를 묻는 문항을 이분변수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조사대상자의 음주를 허락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와 나머지 조사대상자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와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범주를 하나로 통합하였고, 나머지 응답범주(‘허락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허락하는 편이다’, ‘허락한다’, ‘모르겠다’)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결과를 보면 음주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음주를 허용하거나 청소년 음주에 대해 부모가 뚜렷한 태도나 규칙이 없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두 변수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의 결과처럼 음주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주학생과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학생을 비교해 보면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학생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음주를 허락하거나 아니면 뚜렷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금주학생의 비율(26.1%)보다 두 배 이상 많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음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학년에 따른 부모의 통제와 음주수준과의 관계

이 절에서는 학년에 따른 부모의 통제와 음주수준간의 관계를 구체화 모형의 결과와 관련성 측정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 학년에 따른 부모의 감독수준과 음주수준간의 관계

〈표 12〉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학년에 따른 부모의 감독수준과 음주수준간의 관계는 1학년과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학년 학생의 경우에서도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어서( $p=.062$ ) 학년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두 변수의 관계가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년에 관계없이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음주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Cramer's V 값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

〈표 12〉 학년에 따른 부모의 감독수준과 음주수준 간의 관계

학년	음주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1학년	금 주	8.7	91.3
	호기심 수준	45.8	54.2
	실험적 수준	30.8	69.2
	습관적 수준	100.0	0.0
	전 체	32.5	67.5
	Chi Square	16.24**	
	Cramer's V	.46	
2학년	금 주	22.2	77.8
	호기심 수준	60.0	40.0
	실험적 수준	66.7	33.3
	습관적 수준	85.7	14.3
	전 체	58.1	41.9
	Chi Square	7.34	
	Cramer's V	.41	
3학년	금 주	50.0	50.0
	호기심 수준	55.7	44.3
	실험적 수준	65.3	34.7
	습관적 수준	81.8	18.2
	전 체	64.4	35.6
	Chi Square	9.83*	
	Cramer's V	.22	

주 : \*  $p < .05$ , \*\*  $p < .01$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음주수준 간의 관계가 고학년에서 약해짐을 알 수 있다.

(2)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 유무와 음주수준과의 관계

학년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유무와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표 10>). 그러나 <표 13>을 보면 1학년과 3학년 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학년 학생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표 13>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 유무와 음주수준과의 관계

학 년	음주수준	있 다(%)	없 다(%)
1학년	금 주	55.6	44.7
	호기심 수준	44.7	55.3
	실험적 수준	58.0	42.0
	습관적 수준	58.3	41.7
	전 체	51.9	48.1
	Chi Square	2.75	
	Cramer's V	.12	
2학년	금 주	25.0	75.0
	호기심 수준	63.2	36.8
	실험적 수준	32.4	67.6
	습관적 수준	46.7	53.3
	전 체	43.2	56.8
	Chi Square	11.11*	
	Cramer's V	.36	
3학년	금 주	41.8	58.2
	호기심 수준	36.8	63.2
	실험적 수준	40.1	59.9
	습관적 수준	42.0	58.0
	전 체	39.7	60.3
	Chi Square	0.94	
	Cramer's V	.04	

주 : \*  $p < .05$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런 경우 학년 변수는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원분석에서는 관계가 없는 두 변수간의 관계가 제3 변수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두 변수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51.9%, 43.2%, 39.7%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음주수준 간의 관계

청소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4>는 학년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

<표 14>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음주수준 간의 관계

학 년	음주수준	허용하지 않음(%)	허용 또는 불분명함(%)
1학년	금 주	72.7	27.3
	호기심 수준	69.6	30.4
	실험적 수준	60.5	39.5
	습관적 수준	77.8	22.2
	전 체	68.3	31.7
	Chi Square	1.77	
	Cramer's V	.12	
2학년	금 주	89.5	10.5
	호기심 수준	69.2	30.8
	실험적 수준	69.6	30.4
	습관적 수준	36.4	63.6
	전 체	69.6	30.4
	Chi Square	9.30*	
	Cramer's V	.34	
3학년	금 주	66.7	33.3
	호기심 수준	65.7	34.3
	실험적 수준	47.1	52.9
	습관적 수준	36.2	63.8
	전 체	51.6	48.4

주 : \*  $p < .05$ , \*\*\*  $p < .000$

한 결과인데 조사 당시 2학년과 3학년 학생에서 두 변수의 관계가 재현되었고, 1학년 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 학생의 경우 청소년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음주수준이 금주에서부터 습관적 수준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를 허용하거나 또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중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학생들의 63.6%와 63.8%가 부모가 자신의 음주를 허락하거나 청소년 음주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음주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학년 학생의 부모가(48.4%)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부모(31.7%, 30.4%) 보다 청소년 자녀의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수준과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간의 관계의 강도는 2학년 학생집단에서 가장 강하였다.

## 6.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음주와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와 학년에 따른 청소년 음주와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하는 학생이 전체의 50.7%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음주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부모의 감독수준은 낮아지고, 청소년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이 없으며, 부모가 자신의 음주를 허용하거나 부모의 태도가 불분명한 정도가 높아져 학년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약화되고 있었다. 학년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고등학생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통제와의 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금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년 변수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고등학생의 음주수준과 부모의 감독수준간의 관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약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Loeber 등(1986,

재인용; Frick et al., 1999) 이 300여 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요인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등 학생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과 음주수준간의 관계는 2학년 학생에서 그리고 고등 학생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허용여부와 음주수준간의 관계는 2학년과 3학년 학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의 한 차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의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고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자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음주와 약물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약물사용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거나 알코올 이외의 약물을 남용하는 일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수준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프로그램(*universal prevention programs*)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의 경우 이론적 기초 없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근거하여 또는 이론적 근거 없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장점 중의 하나는 예방프로그램의 핵심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방프로그램은 수정이 가능한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요인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부모-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개입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 미성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음주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는 집단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청소년 음주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마련하여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규칙을 세우며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양육방식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프로그램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경우 부모의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USDHHS, 1993). 부모가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한 Rohrbach 등(199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참여율이 높지 않아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부모가 참여한 비율이 7.2%에서 23.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과제를 부여할 경우의 참여율은 66.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저조하다면 Rohrbach 등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부모-자녀 간의 관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과제하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양육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부모에게 배포하여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는데 있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감독수준과 청소년 음주 간의 관계는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하였고, 두 변인간 관계의 강도도 약화되어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유무와 청소년 음주간의 관계는 2학년에서만 유의미하였고, 부모의 태도와 청소년 음주간의 관계는 2학년과 3학년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두 변인간 관계의 강도 또한 1학년에서보다 고학년에 오호려 높아 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상당수의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규칙이 없고(57.1%), 1학년 학생의 경우 고학년 학생에 비해 음주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아직은 호기심으로 음주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실험적 수준 또는 습관적 수준으로 음주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하여 본다. 후속연구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명확한 관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통제수준과 청소년의 알코올 이외의 다른 약물사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문제에 대한 학생·부모·교사의 인식 비교에 관한 연구(김기환, 1999)를 보면 학생들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가정환경에 속한 학생문제 중 제1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부모의 간섭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선택하

였다는 것은 부모의 통제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지나친 수준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부모에 대해 반발을 하여 Stice 등(1993)이 언급한 것처럼 약물사용이 부모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처럼 청소년들이 약물을 쉽게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현상이나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청소년 흡입제의 사용과 부모의 통제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일 것이다.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음주수준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흡입제 사용과도 부적 선형관계를 아니면 비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시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후속연구는 이 연구조사처럼 횡단조사가 아닌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저학년 학생에 비해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래집단의 영향, 입시에 대한 중압감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기환. 1999. "학생문제에 대한 학생·부모·교사의 인식비교." 《학교사회사업》 제2호. pp. 75~104.
- 문화체육부. 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연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 《마약없는 밝은 사회》 제13호. pp. 6~8.
- Bahr, S. J., Maughan, S. L., Marcos, A. C. and Li, B. 1998. "Family, Religiosity, and the Risk of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0(4). pp. 979~992.
- Barnes, G. M., Farrell, M. P. & Banerjee, S. 1995. "Family Influences on Alcohol Ab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among Black and White Adolescents in a

- General Population Sample." In G. M. Boyd(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13~31.
- Botvin, G. J. 1996. *Life Skills Training: Teacher's Manual for Middle/Junior High School*.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Health Press, Inc.
- Chilcoat, H. D. and Anthony, J. C. 1996. "Impact of Parent Monitoring on Initiation of Drug Use through Late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1). pp.91~99.
- Fisher, P. K. and Kane, C. 1998. "Coercion Theory: Application to the Inpatient Treatment of Conduct-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1(4). p.129.
- Frick, P. J. Christian, R. E. and Wootton, J. M. 1999. "Age Trend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onduct Problems." *Behavior Modification*. 23(1). pp.106~128.
- Hansen, J. C. & L'Abate, L. 1981.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Hawkins, J. D., Graham, J. W., Maguin, E., Abbott, R., Hill, K.G. and Catalano, R.F. 1997. "Exploring the Effects of Age of Alcohol Use Initiation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on Subsequent Alcohol Mis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3). pp.280~290.
- Herman, M. R., Dornbusch, S. M., Herron, M. C. and Herting, J. R. 1997. "The Influence of Family Regulation, Connection, and Psychological Autonomy on Six Measures of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pp.34~67.
- Jacob, T. and Johnson, S. 1997. "Parenting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1(3). pp.204~209.
- Jang, S. J. and Smith, C. 1997. "A Test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ervision, Affective Ti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3). pp.307~336.
- Peterson, P. L., Hawkins, J. D., Abbott, R. D. and Catalano, R. F. 1995.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Parental Drinking, Family Management, and Parental Alcohol Norms on Current Drinking by Black and White Adolescents." In G. M. Boyd(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33~57.
- Reifman, A., Barnes, G. M., Dintcheff, B. A., Farrell, M. P. and Uhteg, L. 1998.

-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the Onset of Heavier Drink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3). pp.311~317.
- Rohrbach, L. A., Hodgson, C. S., Broder, B. I., Montgomery, S. B., Flay, B. R., Hansen, W. B., and Pentz, M. A. 1995. "Parental Participation in Drug Abuse Prevention: Results from the Midwestern Prevention Project." In G. M. Boyd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173~195.
- Scheier, L. M. & Botvin, G. J. 199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and Transitions in Alcohol Us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6). pp.652~667.
- Smith, C. A. and Stern, S. B.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71(3). pp.382~420.
- Stern, S. B. and Smith, C. A. 1999.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ntisocial Behavior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Intervention." *Families in Society: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0(2). pp.169~195.
- Stice, E., Barrera, M., and Chassin, L. 1993. "Relation of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s' Externalizing Symptomatology an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Curvilinear Effec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6). pp.609~629.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3. *Eighth Special Report to the U.S. Congress on Alcohol and Health*. Washington, D.C.: Supt. Doc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s' Drinking

Kim, Yong-Seok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s' levels of drinking and the relationship by grades. Parental control was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such as parental supervision, parental rules, and parental attitude toward respondents' drinking. Respondents' levels of drinking were broken down into no use, occasional use, experimental use, and heavy use based on the frequencies of drinking. This study found that parental supervision and parental attitude toward respondents' drinking were negatively related to respondents' levels of drinking. When the effect of respondents' grades was considered in the elaboration models, parental supervision was still significantly related to respondents' levels of drinking. Parental rules and parental attitud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espondents' levels of drinking in the second-year respondents and the third-year respondents respectively. The strength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mportant preventive interventions. That is, prevention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strength parental control. Social workers dealing with adolescents' problems including drinking should teach parents to set clear rules for adolescents' behavior, to monitor their behavior consistently, and to guide them the risks of potential social influences that may lead them to drink.